



지금까지 우리 인류는 하나의 센서로 통신하는 기술을 개발해 왔었다. 완전한 유비쿼터스 네트워크 통신이 되려면 모든 사물 안에 더 작은 컴퓨터 센서 칩이 들어간 사물간 통신(things to things communication)이 완성되어야 하며, 이렇게 될때 인류는 유비쿼터스 사회를 맞이하게 될 것이며, IT 혁명은 완성되는 것이다.

IT산업은 한국이 선진국으로 진입하는데 없어서는 안될 산업이다. IT산업의 시장규모는 80년 대 말만해도 섬유수출액인 100억 불을 넘지 못했다. 그러나 90년 대말 IT수출은 400억 달러를 달성하였다. 사실상 IT 수출은 경상 마진이 높기 때문에 경상 수지에 기여함으로써 90년대 말 불어닥친 환란을 이겨내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지금 한국 IT수출은 총수출액의 30%(1,000억 불)를 넘는다. 특히 IT는 20%씩 경상수지 흑자에 기여하고 있다(매년 약 200억 불).

앞으로 한국이 4만불 소득이 되려면 반드시 IT산업을 성장시켜야 한다. IT는 이미 지적한 것처럼 제2, 제3단계의 혁명이 남아 있다. 이 혁명은 앞으로 전세계의 시장 파이를 세계급 이상 성장시킬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인류는 지금까지 인간 대 사물통신에 관한 기술발전을 위해 온갖 노력을 경주했다. 앞으로 사물과 사물간의 통신기술 개발을 순열과 조합으로 볼 때 현재 시장규모의 세계급 확대가 가능하게 된다.

한국은 이러한 IT혁명기에 있어 세계시장의 주도권을 놓쳐서는 안된다. 그리하여 한국의 경제 재도약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된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무선혁명 그리고 서비스 혁명에 필요한 로드맵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즉 WiMAX 기술을 IMT 기술표준에 포함시키는 문제나 NeuRFon 표준, USN표준의 문제 등등 TTA의 역할은 중차대하다.

한국의 엔지니어 고급 학력도 지난 20년 전보다 두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현재 세계 최고수준이다. IT 세계시장은 넓고 크다. 우리 젊은 엔지니어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과감히 IT 산업에 도전하면 우리나라가 월드컵에서 세계 4강에 올라갔듯이 한국을 4대 경제선진국으로 키울 수 있다고 본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각자는 남의 나라가 하는 것에 놀라지만(I wonder what happened) 말고, 또한 남의 나라가 하는대로(I let it happen)만 따라 하지말고 내가 이 나라에서 만들어 나가자(I can make it happen) 라고 마음을 먹어야 한다”는 레이건 대통령이 80년 초 미국 경제를 새롭게 일으키기 위해 미국 국민에게 호소한 명언을 되새겨야겠다. **TTA**

